

하나의 교회



권호덕 총장(Dr.theol.)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우리는 지금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교회의 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 ‘옛사람의 공동체’에 속하든가 아니면 이 공동체에 살다가 성령으로 중생함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에 속하든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것은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뿐인 교회

교회 속성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이다. ‘통일성’은 ‘일치성’이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 교회는 단 하나 뿐이라는 말이다. 지금 지상에는 수많은 교파나 교단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파와 교단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공동체는 ‘공교회’로서 한 교회에 속한다는 말이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의 아담의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성령으로 중생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를 이룬다. 아담의 가족에 여러 인종들과 민족들이 있듯이 하나의 교회에는 여러 가지 교파와 교단들이 있다. 이 공교회로부터 벗어난 공동체를 이단이라 부른다. 로마제국의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이유로 자기들만 거룩하고 다른 교인들을 정죄한 도나티스트들은 여기에 속한다.

-교회의 분열의 비극과 은혜

그런데 질문이 생긴다. 교회가 하나이어야만 하는데 왜 지상에는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고대 교회가 다섯 교구(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로 발전하다가 AD 1059년에 삼위일체 문제를 중심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졌다. 그 다음 16세기에는 서방교회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지고 개신교는 다시 루터파, 개혁신파, 재침례파 등으로 분열되었다. 그 후에 개혁신파에서는 영국에서 감리교 같은 새로운 교단이나 한국의 성결교와 같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기도 하고 수없이 분열되었다. 한국 장로교회는 거의 200 여개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다. 더러는 신학적인 대의명분으로, 더러는 정치가들의 욕망 때문에 분열되었다.

그러면 교회의 분열은 불행한 일일까?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요17)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다는 점에서 하나의 몸인 교회가 분열되어 나누어지는 것은 분명히 슬픈 일이다. 그럼에도 이런 분열을 통해 교회가 풍성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타락한 인간은 둔하고 온전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제 하지 않으면 자기를 발전시킬 수 없다. 중세 로마 교회가 교황권 아래 하나의 교회로 천년을 유지했으나 독재와 부패에 빠져 성도들의 삶을 풍성케 하지 못할뿐 더러 심지어 이단수준까지 타락한 것은 좋은 예가 된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배워 발전하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배우는 교파들

하나의 교회가 여러 가지 교파로 분열되어 각 교파들이 각각의 특별한 관심거리를 중심으로 신학을 발전시켜 놓게 되면, 다른 교파들이 그 좋은 점을 배워 자기 교파를 완전한 데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칼빈이 처음으로 정립하여 만든 그리스도의 삼직분은 루터파는 물론 동방정교회 나아가 로마 카톨릭도 배운다. 또 개혁신파는 루터교 신학자들이 정립한 그리스도의 두 상태론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칼빈의 성령론을 배우지 못하여 경직된 교회 분위기를 조성한 한국 장로교는 순복음 교회의 성령운동을 통해 자극을 받아 성령론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지상의 모든 교파 교회들이 이렇게 서로 배움을 통해 완전한 데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주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순장교단은 개혁주의 신학 원리에 입각하여 자체의 장점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교회’에 속한 다른 교단의 정점을 보며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로서 지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는 서로 교통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 교단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가 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함을 통해 이 교회가 일원이 된다.



제 4장 속죄제

임창일 교수(구약학, Ph.D.)

1. 개요

본장은 속죄제(贖罪祭, Sin Offering)에 관한 율법을 기록한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다. 본장은 네 종류의 사람들(대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평민)이 각각 범죄할 때에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말한다. 속죄제란 히브리어로 “죄”란 뜻이다. 속죄제란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며 드리는 제사다. 특별히 부지중에 실수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다. 따라서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후에 두려움 가운데 속죄제를 드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히 4:14-16).



2. 속죄제를 드릴 네 종류의 사람들과 그 제물

첫째,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에 수송아지를 드렸다(3절).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이란 대제사장을 의미한다(레 16:32; 21:10; 출 29:29). 대제사장이라도 죄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히 5:2).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속죄제를 드려 죄사함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겸손하게 타인을 동정하고, 죄인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히 5:1-4).



둘째,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에 수송아지를 드렸다(13-14절). “회중”이란 히브리어 “에다”는 교회를 가리킨다. 사울 왕 때에 백성들이 피를 먹었던 경우처럼(삼상 14:32-33), 집단적 범죄의 경우에 수송아지를 드렸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고전 13:8-13), 고린도 교회의 파당, 골로새교회의 이단의 위협처럼 교회와 지도자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다.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한다.

셋째, 족장이 범죄한 경우에는 흠 없는 수염소를 드렸다(22-23절). “족장”이란 히브리어로 왕을 뜻한다. 하나님은 족장, 즉 지도자의 죄를 엄중히 취급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도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롬 13:1).

넷째, 평민이 범죄한 경우에는 흠 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 암컷을 드렸다(27-31절).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렸다(레 5:7). 비둘기 바칠 능력도 안 되면, 고운가루를 드리도록 했다(레 5:11). 그러나 소제와 달리 기름과 유향을 넣지 말고, 반드시 제단 위에서 불사르도록 했다(레 5:12).

3. 속죄제의 제물을 구별한 이유

속죄제물의 등급을 보면, 제사장은 족장보다, 족장은 평민보다 더 값진 제물을 드렸다. 장차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려면, 더 값진 제물이 필요함을 예표한다(히 9:13-14). 다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양을 드릴 수 없으면 비둘기를, 비둘기마저 드릴 수 없으면 고운 가루를 드리도록 한 것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다(레 5:12). 가난하다고 죄 사함을 못 받는 경우는 없었다. 이사야는 돈 없는 자도 오르고 한다(사 55:1).

4.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

(1) 속죄제를 드리는 자는 제물 위에 안수해야 한다(4절). 이것은 죄인이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자

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결국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상징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2) 제물을 제단 북편에서 잡아드렸다(24,29절).

(3)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의 휘장에 뿌리고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른다(5-7절).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갖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것을 예표한다. 성소의 휘장에 피를 뿌린 것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향단 뿔에 피를 바른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됨을 가리킨다.

(4) 모든 희생제물의 피는 번제단 밑에 뿌린다(4절). 이것은 범죄자가 속죄함을 받는 근거가 오직 피로써 가능함을 보여준다.

(5) 속죄 제물의 모든 기름, 즉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은 콩팥과 함께 번제단 위에 불살랐다(8-10절).

(6) 제사장과 온 회중이 수송아지 제물을 드린 경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랐다(레 4:11-12).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할 것을 예표한다(히 13:11-12).

<보훈의 달에 생각한다>

제2연평해전/ 북한해군 서해안에서 무력도발/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월드컵 축제로 들떠있던 2002년 6월 2..

 Chosun Archive | 2002.06.29

한국은 물론 전세계가 월드컵 축제로 들떠있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25분쯤 서해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측 경비정의 기습 포격으로 남북 해군 간에 교전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27명이 탑승했던 우리 해군 고속정 1척이 침몰했으며, 이 고속정을 지휘하던 윤영하(28) 대위 등 우리 해군 5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당했다. 해군 고속정으로부터 집중 대응사격을 받은 북한측의 발포 경비정에서도 화염이 발생, 또 다른 경비정에 의해 예인됐다. 군 당국은 50명승선 규모인 이 경비정에 탔던 북한 병사들 가운데 적어도 10명 이상 사망하고 상당수가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날 교전으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화해·협력 분위기를 보였던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다. 남북 해군의 교전은 1999년 6월의 ‘연평해전’ 이후 3년 만의 일이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전 군에 경

계강화 지시를 내렸다. 유엔사령부는 북한측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기 위한 장성급 회담을 이날 오후 6시에 갖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의 불응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모두 11차례에 걸쳐 군사적 도발을 했으며, NLL 침범은 2002년 들어 14차례, 6월달 만 6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전투에 참여한 전우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北탄환에 손 잘리고도 총 잡던 戰友... 영화 보면 울 것 같아" 창원=권경훈 기자 ♣

연평해전에서 생존한 두 용사, 영화 '연평해전'에 성금하고 "민간인 된 후에도 나라 지키는 일 하고 싶어"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戰友들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 국민들이 영화 보며 느꼈으면" 하고 소원을 가져본다.



당시 하사였던 곽진성(가운데) 박경수 상사(왼쪽) 황도현 중사(오른쪽)와 함께 참수리 357호 위에 앉아있다. 황중사는 2002년 제 2연평해전 때 전사했고 박상사는 2010년 천안함 폭침때 시실종됐다.

곽씨는 "총을 맞아 뒤로 튕겨져 나간 저 대신 총을 잡았다가 제 눈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힘없이 쓰러지며 전사한 부사수 서후원 중사의 뒷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제대를 2주 앞둔 병장이었던 곽씨는 "북한군의 기습 공격 후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정장(艇長·지휘관) 윤영하 소령의 모습과 절반가량 찢어져 덜렁거리던 손바닥을 찢은 옷으로 묶고 대응 사격을 하던 전우들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곽씨는 연평해전 후 2년가량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했고, 하루 1~2시간 겨우 잠을 이룰 정도로 극심한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류성은 목사(예천교회, 서신원
Ph.D. 후보)

**“사랑한다! 예천! 사랑한다!
예천!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사랑이여라!”**

예천공동체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표현한 문구로 글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04년 2월 4일 신천교회(현 신원예담교회)가 개척한 예천교회의 담임 교역자 류성은 목사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다섯 식구가 첫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1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코 짧지만은 않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천공동체에게 주신 아름다운 꿈을 서신원의 지면을 빌어 간증하고자 합니다.

별 생각 없이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계획을 당회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예상과 달리 당시 교육전도사였던 저에게 교회개척을 위한 전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예천교회가 세워진 순간은 지금 생각해 봐도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세우고 운영하기가 힘들어 3년도 버티지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3년 만에 재정적인 자립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교회 설립 6년 만에 지금의 예배당을 매입하여 안정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기억은 언제나 돌아봐도 영원히 기억에 남을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2013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교회가 힘들었는데 지난 해 회복시키시고 2015년은 흥분되는 꿈으로 들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한 가정의 등록과 함께 시작되었던 올해 다시 전도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조금 좁다고 느껴지던 예배공간을 보다 넓은 공간으로 이주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천구청이 현 예배당 자리를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기로 하여 계약을 했고 마침 종교부지를 소유하고 계시던 집사님이 교회에 매도하기로 결정하여 다가오는 가을 새로운 예배처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곳과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이주에 대한 어떤 부담도 전혀 없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4월 초 시작된 일이 3주 만에 결정되어 매도하고 매입하는 계약을 하던 날은 정말로 꿈을 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의 사정상 세입자가 있었는데 이후로 온전히 교회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모두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쯤 이주할 계획인데 예천공동체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여 사랑하는 교단의 믿음의 형제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마침 지난 3월 당회구성을 위해 공동의회를 열어 장로 1인과 권사 4인을 피택하였습니다. 2015년이 가기 전에 잘 준비하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예천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놀라운 이러한 예천교회의 역사를 꿈을 꾸는 것과 같이 만드신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에도 굴하지 않고 늘 목사를 신뢰하고 따라주며 힘을 모았던 사랑하는 우리 예천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 믿습니다. 지면을 빌어 예천가족들을 가슴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저는 담대히 동료와 후배 목회자들에게 개척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행복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개척이라 말합니다. 물론 힘든 일들도 많았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확인하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은 아니지만 교회다운 면모를 조금씩 갖추어 가며 총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점차 확대되어 갈 수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큰 이유가 되겠지요.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해 가는 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고 준비하셨고 채워주셨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매입하는 과정도 그러했지만 특히 현재 예배당을 구하기 위해 애쓰던 때도 하나님은 너무도 철저히 예비하셔서 예천공동체 모두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이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

은 성경적인 원리에 따른 개척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출자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교회인 신천교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개척초기 저희 가족은 오로지 전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천교회가 그렇게 전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과 같은 예천교회가 존재하지 못했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교회의 어른들 중에는 부족한 종인 저와 예천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원하고 위해서 축복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천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앞으로도 예천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개척형태가 교단 내에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천공동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예천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세워질 때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될 것이며 교단의 지경도 더욱 넓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파송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일을 더욱 알차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교회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란 딱지를 떼 예천교회는 모교회인 신천교회가 예천교회를 설립한 것과 같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체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보다 더 협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작지만 단단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예천교회를 늘 지켜봐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더욱 충성하여 보다 기쁜 소식을 늘 전하는 우리 예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의 달에 사진으로 보는 인천상륙작전>



썩아지 이야기



이경아 박사(Ph.D., 신원예닮교회)
현 서신원 신학석사과정

시인 백석의 시 가운데 「오리 망아지 토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동물을 잡으러 올라간 산에서의 한 때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길목을 막아섰는데도 도망친 애지를 간절히 부르는 아들의 마음을 알고, 그 아들을 따라 “애지야 오너라, 애지야 오너라” 함께 외쳐주던 아버지의 마음이 물큰 번져오는 글입니다.

‘애지’란 동물의 새끼를 칭하는 평안북도 방언입니다. 표준어는 ‘아지’입니다. 예를 들면,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등이 있습니다. 동물뿐 아닙니다. 식물에도 ‘아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썩아지입니다. 썩아지는 갓 나온 싹이 서너 마디를 거쳤을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식물을 잘 성장하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처음 썩아지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한번 잘라줘야 합니다. 그 때, 비로소 그 썩은 튼실한 줄기로 또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썩아지를 잘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좋아져서인지 비료가 좋아져서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우스에서 키운 식물과 열매, 그리고 오이맛고추와 같은 돌연변이 먹거리가 커다랗고 싱싱한 모습으로 등장한 지도 꽤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실이나 하우스도 무균실은 아닙니다. 균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생명은 성장합니다.

메르스(MERS) 열풍으로 누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

러나 어떠한 전염병이든 간에 면역력이 있으면 지레 겁먹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역력은 “저거 미친 거 아냐?”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배를 만들던 사람, 노아 같은 삶의 태도를 갖게 합니다. 그 태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것이요, 우리 삶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느냐는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의 면역력은 세상의 흐름과 가치를 ‘십자가 정신’이라는 창을 통하여 보고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와 서로의 가치를 ‘십자가 정신’의 틀 안에서 찾고 나누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질서에 ‘십자가 정신’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는 ‘십자가 정신’을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삶의 모양을 잘라내, 썩아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 올곧은 신학과 올바른 신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분위기가 되고, 면역력 있는 신자의 품위가 되고, 나아가 우리 신앙을 전수받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인격의 모범이 됩니다. 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힘, 아닌 것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거부하는 힘, 주께 받은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내는 힘, 주께서 주신 은사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썩아지의 힘이요,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이요,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힘입니다.

무화과 나무



썩아지는 열매를 지향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5)



이동영 교수(Dr. theol.)

1. 구약과 신약에서 ‘알다’의 의미

구약성경에서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יָדָע)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구약성경에서 ‘야다’라는 동사를 써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 즉 ‘야다’는 하나님을 순수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사변적으로, 관념적으로, 주지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학이 추구하는 하나님에 관한 앎의 추구의 그 독특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학이 추구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서의 ‘야다’는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획득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려는 것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이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안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즉 ‘야다’의 용례가 창세기 4장 1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동침하였더니 [‘야다’ יָדָע]) 가인이 출생하였다.

본문에서 “알았더니”에 해당하는 말이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앎에 대한 동일한 용례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5절에도 나타납니다.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 하지 아니하더니 [알지 아니하더니 οὐκ ἐγγίνωσκεν] (...)”.

우리말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라고 되어있는데, 희랍어 원문에 보면 “알지 아니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이성주의적이고 주지주의적인 앎이 아니라 내밀한 관계 Intimitätsbeziehung를 통해서, 상대방의 생명과 실존에 참여함으로써 상대방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참조. 호 4, 6; 요 8, 54-55; 요 8, 19; 요 6, 69; 요일 3, 2. 신약성경에서 특히 바울은 신앙을 종종 ‘인식’ agnitio으로 표현한다: 엡 1, 17; 골 1, 9; 3, 10; 딤후 2, 4; 딤후 1, 1; 몬 6; 또한 참조. 벤후 2, 21[J. Calvin, Inst., III, 2, 14]). 하나님께 참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2위격의 하나님이신 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인간의 육체에 참여 함으로서, 역으로 우리 인간의 육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에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 Inkarnationsereignis을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Herman Bavinck는 하나님의 자기전달 Selbstmitteilung Gottes이라고 불렀습니다(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 3권, 374). 하나님의 자기전달로서의 성육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communio와 ‘사귄’, Gemeinschaft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강생하사 우리와 똑 같은 육체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 θεοτης이 우리의 육체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역으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비적인 연합 unio mystica이다. 이 교제는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한다. 이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연합, 인격들의 연합 unio personarum, 파기될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으로서, ‘윤리적’이라는 명칭으로 묘사하기에는 너무도 언약하기에 ‘신비적’이라는 명칭으로 일컬어 졌다. (...) 만일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참으로 하나의 환상이 아니라 참된 실재로서 이해된다면, 성육신에 대한 (...) 유비가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 하나님의 자기전달가능성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는 원리적으로 성육신도 인정했던 것이다(바빙크, 같은 책, 374).

바빙크는 성육신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성령을 통한 양자 사이의 ‘신비적 연합’ unio mystica이라고 정의했습니다(바빙크, 같은 책, 374).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고, 성령에 의해서 조명된 지식이며, 성령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킴으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2. 신앙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단순한 관념적 지식이 아니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고, 성령에 의해 조명된 지식이며, 성령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더불어 cum verbo 우

리를 그리스도와 ‘연합’^{unio} 시킴으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에 관한 ‘야다’의 지식, 즉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므로 획득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는 ‘신앙’^{fides}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칼빈^{Johannes Calvin}은 신앙을 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에 기초한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자비에 관하여 확고하고 확실하게 아는 지식인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 생각(지성)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속에 인쳐졌다(J. Calvin, Inst., III, 2, 7. 밑줄은 필자의 강조).

우리가 상기의 인용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인치신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삼위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칼빈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신앙^{Fides}으로 규정했습니다.



신앙은 곧 지식이라는 칼빈의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칼빈이 신앙을 지식으로 규정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칼빈의 신앙에 대한 정의가 너무 주지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칼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칼빈을 그런 식으로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너무 주지주의적이지 않은가라는 (...). 하지만 칼빈이 말하는 신앙으로서의 지식은 단지 주지적 지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에게 참여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획득되는 지식이며, 그러기에 이 지식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뜻 까지도 통찰하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신앙)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라 지식이다. 그러나 이 지식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의 뜻까지도 아는 지식이다(J. Calvin, Inst., III, 2, 2).

그러므로 칼빈이 말하는 신앙으로서의 지식은 주지주의적인 지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칼빈은 ‘참여’^{Teilnahme}와 ‘경험’^{Erfahrung}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신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신앙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뜻까지도 통찰하는 지식입니다. 참여하고 교제함으로써 획득되는 지식이야말로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되어감 속에 있는 지식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위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신앙입니다. 이 지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앎으로 획득되게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정적이고 고정되고 굳어진 지식이 아니라 동적이고 관계적이며 참여적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일평생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획득되어가는 경건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sanctificatio}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칼빈의 말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기초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J. Calvin, Inst., III, 2, 8. 밑줄은 필자의 강조).

여기서 믿음(신앙)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 기초로 삼기는 하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삼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한 순간의 고정적인 실체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속에서 획득되는 지식입니다. 하여 이 지식은 ‘되어감 속에 있는 지식’^{Kenntnisse in der Werdung}이지 고정적이고 교조적인 지식일 수 없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과 우리의 바른 반응인 회개 (행 2:22-38)



장석조 교수(신약학, Ph.D.)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1:6) 마치는(28:31) 구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제시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주제는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누가는 이 기독교론적 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서술하고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회개의 반응은 중요한 요소다. 누가복음이나(눅1:16; 3:2; 24:46) 사도행전(행2:38; 28:27) 모두 회개로 시작하고 마친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처음 사용된 ‘회개’의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참된 회개에 관해 배우려 한다.

행 2 : 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한(행 2:22-36) 후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구속사적 첫째 단계는 예수님이 능력들, 즉 기사들과 표적들을 행하신 것이다(행 2:22; 1:1 참고). 예수님은 능력들을 행한 목적이 회개하게 하는 것이라 명시했다(눅 10:13). 바로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서 회개의 동사가 처음 나타나는 곳이다. 이 회개의 결과는 죄 용서와 관련되어 있다(눅 5:8, 23).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주님이심을 명시하신다(눅 5:24). 예수님은 단지 사회적 약자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죄까지도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선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주님이시다(눅 7:19; 11:20).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으로서 행하신 둘째 구속사적 단계를 증거한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나라를 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먼저 현재적으로 선취하는 능력들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주기 위해 속죄와 새 언약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 주셨다’(행 2:23).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나라의 궁극적 근거가 되는 속죄와 새 언약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자주 가르치셨고 최후의 만찬 행동으로 보

이셨다(눅 9:22; 22:16-20; 행1:2).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나님나라의 두 대표적 구속 사역을 행하신 주님이심을 증거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은혜로운 주님을 죽이되, 잔인무도한 불법자들의 손을 통해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박혀 죽인 죄를 지적한다(행 2:23).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성취하시는 주님이신 가장 명시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셋째 구속사적 단계는 예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의 능력을 파괴하며 부활하신 것이다(행 2:24-32). 죄인을 지배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는 죄 없이 죽으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계속 죽음의 능력으로 가뒀을 수 없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결정적으로 성취되었고 사도들은 바로 그 증인이 되었다.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넷째 구속사적 단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영원한 하늘로 올라가 원래 하나님나라의 보좌에 복귀하셔서 그 영광을 완전 회복하신 것이다(행 2:33-36). 베드로는 이 승천의 의미를 시편 110편으로 해석하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신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님이 현재는 승천의 주님으로서 미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심을 가르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죄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로 받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적 소명을 제시한다.

사람의 육체는 숨을 쉬어야 생존하고 생활할 수 있다. 요즘 우리를 무섭게 하는 메르스는 우리가 편히 숨 쉬는 것조차 방해하며 생존을 위협하는 호흡기 질환이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중동 호흡기 증후군). 세월호 사고로 받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국민 전체와 세계를 위협하는 메르스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성경에는 무서운 재앙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메뚜기떼로 인해 힘들었던 사건이다(출 10장; 왕상 8장; 사 33장). 구약의 선지서 요엘서는 그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엘 1:4) 참된 회개(요엘 2:1-17)로 하나님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복(요엘 2:18-27)과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는 성령의 복(요엘 2:28-32)을 약속한다.

우리는 메르스와 지진 등 육체적인 일들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요엘이나 베드로와 같이 육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조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현미경으로도 발견할 수 없

는 주님과 그의 말씀을 떠나 방황하며 살아가는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속사를 이루신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현재적 선취를 베푸셨듯이, 승천 이후에는 사도적 교회를 통해 그 사역을 계속 하신다. 구속사역은 탄생부터 재림까지 점진적으로 계시되지만, 주의 죽음과 부활, 승천 등 구속사의 결정적 사역이 성취되었기에 사도적 교회는 승천과 재림 사이의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하나님나라의 현재적 선취를 경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나라의 미래적 완성을 소망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선교신학>

영화 『아바타』와 기독교



배춘섭 교수(Ph.D. 선교학)

1. 서론

미국의 저명한 종교학자인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영화는 현대판 종교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즉, 영화는 일상의 시공을 초월케 하여 다른 차원의 시공으로 인도하는 데 이것이 꼭 “종교와 유사한 행위”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 『아바타』(Avatar)는 “종교의 아바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첫째는 종교다원주의자요 비기독교인인 그가 이 영화의 3D 상영을 통해 무려 13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여 세계적인 흥행을 주도했다는 것과, 둘째는 본질적으로 인간이란 존재는 현실을 초월해서 다른 차원의 세계를 자주 꿈꾸는데 이 비기독교적 영화가 한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개체이자 대안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미국 CNN 방송이 보도한 것처럼, 영화를 관람했던 사람들이 영화 속 나비족의 ‘판도라 행성’에 대한 동경 때문에 적지 않게 우울증이나 자살충동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이를 정확히 반증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보여주는 사상적 쟁점들과 기독교적 시각에서 성경과 충돌되는 문제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곧 『아바타2』가 한국에서 또 다시 개봉된다고 하니,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 이 영화를 기독교의 세계관 입장에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시놉시스(Synopsis)

영화 『아바타』는 지구의 자원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기 2154년 ‘자원관리개발부’(Resources Development Administration)가 우주의 다른 소행성인 판도라(Pandora)에서 대체 광물자원인 언옵타늄(unobtainium)을 채굴하려는 과정에서, 지구인들과 행성의 거주민인 나비족(Na’vi)과의 갈등을 토대로 내용이 시작된다.

행성 판도라에는 청색의 토착민 ‘나비족’들이 신성한 영혼들의 나무인 모신(母神) ‘에이와’를 숭배하며 살아간다. 이런 판도라의 행성은 지구와 달라 대기의 공기가 독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인간은 산소마스크를 써야만 한다. 그러던 중 지구인 과학자들은 ‘아바타’를 개발하는데, 이런 아바타를 조종하려면 인간과 유전자(DNA)가 일치하여 정신교류가 가능해야만 한다. 이 때 ‘제이크 설리’(Jake Sully)는 전직 해병으로서 ‘하반신 마비’ 때문에 인간사회에서 환대받지 못하지만 ‘아바타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그의 형이 갑작스런 사고로 죽자 형과 같은 유전자(DNA)를 지녔다는 이유로 아바타의 조종사로 선택된다.

그러던 중 제이크는 팀장 어거스틴박사와 인류학자 노움 스펔먼과 함께 생물학 샘플과 데이터 수집을 위해 숲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제이크는 사고로 나비들의 공격을 받아 일행과 헤어지게 되어 숲을 헤매던 중 나비족 추장 에이투칸의 딸이자 여전사인 ‘네이티리’(Neytiri)와 만나게 된다. 그 후 그는 네이티리가 거주하는 흙추리 본부에서 나비족의 방식으로 교육을 받으며 네이티리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

이 때 제이크는 한 동안 소식이 없었던 보안대장 쿼리치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는다. 만약 자원관리개발부(RDA)가 흙추리에서 나비들을 내보내고 본부 밑에 문헌광물을 채광할 수 있도록 정보만 주면 자신의 다리를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제이크는 네이티리와 가깝게 지내면서 RDA의 요청을 거부하고 나비족과 한 편이 되어 네이티리와 함께 행성침략자(지구인)들과 맞서게 된다. 결국 RDA 책임자인 셸프리는 보안군에게 흙추리 파괴명령을 내리자, 그레이스는 아마도 흙추리는 판도라의 유기체가 연결된 생태계신경망의 진앙지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올수 있다고 충고하지만 셸프리는 전쟁을 단행한다.

한편 제이크는 나비족인 오마티카야 족에게 자신들이 온 목적을 알리게 되는데, 이 내용을 들은 네이티리는 그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쿼리치의 부대는 흙추리를 파괴하고, 네이티리의 아버지인 추장 에이투칸을 포함한 여러 나비족 토착민들을 사망케한다. 결국 제이크는 나비족의 신임을 회복하려고 목숨을 걸고 하늘을 나는 괴물 토루크를 훈련시켜 ‘영혼들의 나무’에 있는 오마티카야족을 찾는다. 이

런 열정때문이었는지 제이크는 네이티리와 새 종족 지도자 추테이의 도움을 받아 여러 종족출신의 수 천명의 전사들을 모아 인간용병들과 접전하게 된다. 그리고 전쟁이 나가기 전 ‘에이와’와의 교감을 통해 나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한다.

반면 콰리치는 ‘에이와’ 나무에 대한 선제공격을 통해 나비종교와 문화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다짐한다. 이렇게 보안부대의 공격 때문에 나비들은 심한 타격을 입게 되지만, 갑자기 판도라의 야생동물들이 전쟁에 함께 가담하면서 전쟁의 판세는 뒤바뀌게 된다. 제이크와 나비의 종족들이 지구인 세력을 꺾자 네이티리는 ‘에이와 신의 응답’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제이크는 보안군 폭격기가 ‘영혼들의 나무’를 공격하기 직전에 상대의 폭격기를 파괴시킨다.

다른 한편, 콰리치가 아바타 링크의 유닛을 찾아내어서 제이크의 인체를 공격하려하자, 네이티리는 그를 죽인다. 전쟁 막바지에 네이티리와 제이크는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네이티리는 생전 처음으로 제이크의 인체를 목격하게 된다. 전쟁 후 셸프리지와 남은 RDA 세력은 판도라에서 추방되지만 제이크와 노옴과 기타 과학자들은 남도록 허락을 받는다. 결국 제이크는 오마티카야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의 제식에 의하여 인체로부터 나비 아바타로 영구 변신하게 된다.

이처럼 이 영화는 인간사회를 대표하는 ‘제이크 설리’와 나비족 ‘네이티리’의 교감과 갈등 그리고 화해를 그려가면서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현대문명과 원시문명으로 구분된 사회공동체 속에서의 인간은 과연 함께 공존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현대화 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잃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등을 표현하고자 한 것 같다.

3. 주요 쟁점들(Main Issues)

영화 아바타는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대중적 호응만큼이나 이에 걸 맞는 다양한 쟁점과 담론들을 제시하였다. 이런 쟁점들로 인해 이 영화는 여러 계층의 사회적, 정치학적, 종교적 관심의 반영과 함께 강도 높은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필자는 상당히 다양하고 혼합적인 세계관과 사상이 영화에 복합적으로 묻어났다는 생각을 쉽게 지울 수 없었다. 아마도 관객들이 더 몰입해서 흥미롭게 이 영화를 볼 수 있었던 이유도 대중적인 관심을 끌어내는 매개 장치와 사회적 관심 등 많은 다양한 쟁점들(issues)이 내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사회-정치학적 측면에서 이 영화는 각 국의 사회적 쟁점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인실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실제, 영화 속 지구인들과 나비족의 전쟁 장면(Scene) 중 자원관리개발부의 용병들이 무차별적으로 나비족을 폭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화 평론가

존 놀티(Nolte)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는 명백한 정치적 영화”라고 언급했고, 존 포도레츠(Podhretz)는 “아바타 영화는 반미주의에 대한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가장 민감하게 이 영화에 반응했던 나라는 가히 중국일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영화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2D 아바타 영화를 전국적으로 상영을 금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그 정치적 속내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실상을 보면, 중국정부는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수민족들과의 여러 마찰 속에서 그들에게 가했던 강압적 진압이, 마치 영화에서 토착민 나비족을 강제로 철거시켰던 용병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상영반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계속)

<옉기서 강해>(5)

“옉에게 닥친 두 번째 재앙”



박영준 교수(구약학, Dr.theol.)

옉은 그의 소유물, 즉 재산과 자식들을 잃는 첫 번째 재앙을 당하였지만, 그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 첫 번째 재앙 이후에 사탄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 1장 6-12절과 비슷한 형식으로 2장 1-6절의 천상회의 장면이 묘사된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옉의 믿음을 칭찬하신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에 사탄은 첫 번째 시험은 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대응한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울지라”(2:4) 이 구절을 직역하면, “가죽에는 가죽을,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준다.”이다. “가죽에는 가죽을”이라는 표현은 공정한 거래를 의미하는 속담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은 앞의 속담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사람은 원래 소유물을 모두 잃었어도 생명이 보존된다면 사람에게 그리 밀지는 장사는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사탄이 이 말을 옉에게 적용한 이유는 첫 번째의 재앙에서 옉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잃어 버렸지만, 자신은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욱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탄은 하나님께 또 다른 시험을 제안을 한다. 이 시험은 앞선 첫 번째 재앙과는 다르게 욥이 밀지는 상황이다. 5절에서 사탄은 욥의 “뼈와 살”을 치는 재앙을 내리면 욥이 자신의 경건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이 재앙은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

7-8절에서 욥의 두 번째 재앙이 묘사된다. 첫 번째 재앙과 다르게 이번의 시험은 사탄이 직접 집행한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욥의 온 몸에 종기가 생긴다. 욥은 잣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는다. 그전과는 다르게 이제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한 몸이 되었다.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도 없어서 성 밖의 잣더미에 앉아 있다(칠십인경은 이 구절을 “성읍 바깥 거름더미”로 번역했다). 이때 욥의 아내가 등장하며 소리친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러한 그녀의 발언은 사탄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2장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욥에 대한 긍정적 평가(“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를 오히려 비꼬고 있다. 이것은 마치 죄를 범하라는 하와의 유혹과 비슷하다. 오죽했으면 칼빈이 그녀를 가리켜 “사탄의 도구”라고 했을까. 그러나 아담과 다르게 욥은 아내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 그는 그녀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떨어지는 자”를 의미하기 보다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는 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는 오히려 그녀를 훈계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받다”라는 히브리어 ‘카발’은 단순히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욥은 피조물이라면 고난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쯤으로써 그는 시험을 이겨내었고 사탄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다.

두 번째 재앙에 나타난 욥의 신앙은 그의 아내와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욥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거나 이성적인 것 같다. 그녀는 욥의 두 번의 재앙을 지켜봤다. 그럼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이런 그가 그녀에게는 어리석은 자 같이 보였을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 모두 성공하고 부유한 것은 아니다. 재앙을 당하고 여전히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우리들에게 불신앙인들 혹은 같은 신앙인들조차 우리를 어리석게 보며 말한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그분에 대한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이런 그들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말 그대로 “불신앙”적인 생각이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 2장 10절의 욥의 고백

은 우리에게 이성이 아닌 신앙의 눈, 영성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을 권한다. 이것은 이사야 45장 7절의 하나님의 선포와 유사하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욕의 아내의 신앙은 “실용적 무신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신론이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라고 불리지 않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기독교인도 교회를 다녀도 무신론자일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실용적 혹은 현실적 무신론자이다. 실용적 무신론이란, 첫째,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의 존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삶의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신의 존재는 믿지만, 이러한 신이 자신의 인생에서의 도덕적 행동이나 종교적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둘째, 신에 관한 신학적 문제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무관심을 의미한다. 첫 번째의 경우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심도 없고 무지한 신앙의 형태이다. 매주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린 하나님이 이 예배자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교회 밖 세상 생활은 세상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교인들이 바로 실용적 무신론자인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혹은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자도 실용적 무신론자이다. 그러나 욥의 신앙은 영성이 있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다. “화도 받지 않겠느냐?”는 욥의 고백은 그의 신앙이 인간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

메시지 개요와 흐름에 대한 제안

- 1) 욥의 두 번째 고난(2:1-8)에 대한 의미 설명(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재앙).
- 2) 욥의 아내의 충고(2:9)의 의미
- 3) 그녀를 향한 욥의 훈계(2:10)에 대한 신학적 의미 설명
- 4) 본문의 신학적 의도와 메시지를 현재 우리에게 적용(욕의 아내와 같은 실용적 무신론이 나에게 없는가?)
- 5) 가르침과 다짐(이성이 아닌 영성으로 세상을 보자)



개혁신앙의 기초: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해설(5)



김은수 교수(Ph.D.)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1) (The First Purpose of Human Being)

제1문 :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 <<참조성구>> 고전 10:31; 롬 11:36; 시 73:24-26; 요 17:22

I. 존재의 목적

(The Purpose of Existence)?

우리는 오늘도 너무나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숨가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잠깐동안만이라도 멈추어 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성공적인 삶? 도대체 그것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인가? 일(work)인가? 명예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 어떤 누군가에 대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인가?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을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웨스트민스터총회 토의 모습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참가자들이 이렇게 4년 이상 기도하며 토론해서 만든 것이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많은 대답들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고 바라는 바, 우리가 반드시 서야만 하는 인생의 마지막 지점,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역으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역설일까? 다시 말하자면, 인생이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며,

순간순간 어떠한 선택을 강요당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또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바로 그와 같은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서야만 할 인생의 마지막 지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과 소망, 바로 그 곳으로부터 현재 내가 서 있는 현실로 이어진 하나의 노정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위 "종말론적인 삶"(an eschatological life)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웨스트민스터 소고리문답>의 제1문답은 바로 무엇에 쫓기듯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심각한 도전을 해오고 있다. 과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 존재의 목적과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생명이 없는 사물이나 하찮은 미물에게도 존재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실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우리의 인생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또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올바른 것인가? 수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 이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처절하게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그의 저작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에서 인간의 존재를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 보았으며, 그러한 우리의 실존적 존재를 일컬어 "세계-내-존재"(In-der-Welt-Sein) 또는 "현존재"(Dasein)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본래적 존재목적(終極目的)을 상실한 현존재를 "일상인"(das Man)이라 불렀고, 그 존재의 본질을 "불안"(Angst)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항상 "죽음에 직면한 존재" 혹은 "죽음으로 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그러한 불안을 초극하는 길

은 "본래적인 존재방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실존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가 사람이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목적에 따라 사는 것, 그 본래적 존재방식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있는 참된 인생이라고 본 것은 주의 깊게 생각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무릇 사람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되는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스스로 세운 자기 자신의 꿈이라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귀하고 복된 것은 우리의 본래적인 존재목적에 부합하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목적이 이끄는 삶"(the Purpose driven Life)이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고후 9:24-26)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고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존재 이유, 즉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할까? 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인가?

1.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the true Living God)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정의들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오직 그 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the Living God)이라는 것이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다른 신들, 곧 죽은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신다(cf. 시 115:4-8; 렘 10:3-16).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사 42:8). "오직 여호와와는 참 하나님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요 영원한 왕이시라"(렘 10:10). 이 절대적 언명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운데서 인격적이지고, 불변하시는 유일무이한 자신의 참된 실재를 드러내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세계와 구속역사, 그리

고 그의 백성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the true Living God)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자기의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 * 렘 10:10 - "오직 여호와와는 참 하나님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요 영원한 왕이시라"
- * 사 42:8 -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2.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창조자(the Creator)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오직 그 분만이 존재하는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모든 존재하게 하신 참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실로 그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으며, 그것을 그의 피신 능력의 오른 팔로 보존하시며, 또한 전적인 주권으로 그것들을 통치하신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붙들어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시 19:1)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다.

-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라"(시 148:1-5).

- * 계 4:11 -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 * 시 100:3 -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 * 롬 11:36 -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

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 전 12:1-2 -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3.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the Redeemer)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 그는 우리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라고 했다. 우리는 참으로 그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20)고 하였다. 따라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8)라는 말씀이 영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사 43:11 -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 시 50:15 -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 딤후 4:18 -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 Soli Deo Gloria!-

다"는 발언에 근거한다.

본회퍼의 베를린 테겔 감옥생활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거기에는 비누도 깨끗한 물도 부족했다. 그는 거기서 홀로 지나는 일을 훈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엄격하게 격리되었다. 그 당시 구치소는 가수는 정치범들과는 결코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었다. 구치소 수감 첫 주간에 그는 메모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자살, 죄의식 때문이 아니라 이미 사실상 죽었기 때문이다. 종지부, 총 계산" 육상으로 다쳐진 몸을 지닌 한 사람은 고문에 못 이겨 밖에서 히틀러 제거음모에 가담한 친구들을 배반할까봐 두려워했다는 메모도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그런 메모가 없었다고 한다.

1945년 나치군법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4월 8일 이른 아침에 저항에 참여한 그의 가족 3명을 포함한 5천명의 사람들과 함께 교수형을 당했다. 3주후 히틀러는 자살했고 5월 8일에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했다. 그리고 사후 50년 만에 베를린의 한 법정에서 독일의 양심 본회퍼 목사를 복권시켰다. 복권 판결의 이유는 '본회퍼는 결코 국가를 위태롭게 한 것이 없고 오히려 나치의 폐허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구출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기독교인물>

독일 출신의 본회퍼는 신학적으로 볼 때 루터파 교회의 정통신학자이다. 콜부뤼게 학파의 영향을 받은 그의 신학은 개혁신학에 매우 가깝다. 그는 종교개혁신학을 이어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신학을 전개했다. 본회퍼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한 것은 루터의 발언 곧 "미친 마부가 마차를 미친 듯이 몰고 가는데 그 위에 탄 귀부인을 구하려면 누군가 그 마차에 올라타서 마부를 제거해야 된

성경적 “개혁주의신학”을 바탕으로

영적지도자를 양성하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2015 신·편입생모집

원서접수: 6월 15일(월)~7월 3일(금)

전형방법: ① M.Div./ Th.M./ M.A.: 서류전형
(1차), 면접(2차)

② Ph.D. : 서류전형(1차), 영어 및
전공시험(2차), 면접(3차)

전형일시 : 7월 9일(목) 오전 10시

문의 : 02-845-77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 14가길 45-1

(2호선 신대방역 4번 출구 도보 7분)

1. 대학원 과정

▶ 목회학석사(M.Div.)과정

모집정원: 신·편입학 00명 (주·야간)

-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전공
불문)를 받은 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
3) 일반대학 및 본교가 인정하는 4년
제 신학교 졸업(예정)자
4) 세례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 신학석사(Th.M.)과정

모집정원 : 신학전공(구약, 신약, 조직, 역사, 실천,
주석·설교, 선교) 00명

지원자격 :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
이 인정한 자)로서 목회학석사(M.Div.) 학

위소지자

2) 학사 학위 소지한 자로서 목회학연
구과정(M.Div.eq.) 이수자

▶ 문학석사(M.A.)과정

모집정원 : 성경학 00명, 선교학 00명,
기독교상담학 0명

지원자격 :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

▶ 철학박사(Ph.D.)과정(편입생 모집)

모집정원: 신학전공(구약, 신약, 조직, 역사, 실천,
선교) 0명

지원자격: 1) 구약, 신약, 조직, 역사, 실천, 선교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 또는 동등
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
한 자
-목회학석사(M.Div.) 및 신학석사(Th.M.)
학위를 취득한 자
2)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선교학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 또는 동
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
정한 자
-동일 전공의 석사(M.A.) 학위를
취득한 자
단, 목회학석사(M.Div.) 학위가 없는
자는 M.Div.과정 필수 4과목을 이수해
야 함

2. 평생교육원

▶ 기독교 상담반(상담연구원)

교인들 또는 위기체 처한 사람들의 상담을 위한 인
재를 키우는 과정

▶ 평신도 조직신학 교사반

평신도들에게 성경지식을 체계화시켜주는 과정

▶ 목회자 주석-설교 연구반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주석하는 일을 숙지시키고 그
주석에 근거하여 설교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연마하는
과정